

“불법 현수막 ‘착한 변신’ 합니다”

해남군, 행안부 시행 불법현수막 등 재활용사업 선정 폐현수막 재활용 위한 수거보관함 운영·재활용 추진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2년 불법 현수막 등 재활용사업에 선정됐다. 전국 22개 시군구가 공모 선정된 가운데 해남군은 ‘불법 현수막의 그 끝, 착한 변신’이라는 주제로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수거보관함 운영과 재활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 폐현수막은 소각 처리되던

서 폐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 인해 재활용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어 왔다. 군은 폐현수막 수거보관함 및 지자체 수거함을 제작하고, 현수막 철거 장비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치할 계획이다. 폐현수막이나 불법 현수막은 수거 보관해 재활용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폐현수막은 과수원이나 농경지 덮개로 사용할 경우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깨나 고추 등 농작물을 말리는 명석대용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한다. 해남군은 올해는 수거체계를 갖춘 후, 내년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마대자루, 시장가방, 토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통해 해남군 ESG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모범 납세자에 표창패·증명서 전달

법인 2곳·개인 1명 선정, 세무 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 주어

완도군이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사회적 모범이 된 법인과 개인에게 ‘2022년 전라남도 모범 납세자’ 표창패와 증명서를 전달했다. 모범 납세자는 ‘전라남도 모범 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납부 건수가 연 3건 이상인 자로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군은 청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차동약)에게 전라남도지사 표창패와 모범 납세자 증명서를 전달하였고, 완도를 청해진바다영양조합법인 대표 이수진 씨와 완도를 피아노모텔 대표 김진

에 씨에게는 모범 납세자 증명서를 전달했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NH농협은행, 광주은행으로부터 1년 동안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와 도정 참여 기회 우선 부여, 전남 소재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과 군의 세정 발전에 기여하신 모범 납세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강진군 “한우·젖소 치료비 보험으로 해결하세요”...최대 75% 지원

21일부터 강진완도축협에서 접수

강진군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가축질병 발생시 축산농가 대부분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수의사 대신 자가 치료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질병치료보험’지원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강진군은 2019년부터 4년째 보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우를 사육하는 122 농가(4,242두)에서 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 중 70여 농가(2,720두)에서 2억 4,900만 원의 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 2019년 22농가(725두)를 시작으로 다음해 85농가(2,604두)에서 가입해 매년 가입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200농가(8,600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 가입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강진완도축협(☎430-2809)을 통해 접수하며, 가입대상은 귀표번호가 부착된 한우·젖소이며,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장은 사육하는 전 두수를 가입해야 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료의 75%(국비 50%, 지방비 25%)는 보

조로 지원하고 축산 농가는 보험비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연간보장한도액 80만원 미만인 되는 소 8두 이하 사육농가와 축산업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는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에서 소 8두 이하 소 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 치료비의 5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농가는 가축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와 계약된 수의사에게 진료료 받고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황인준 환경축산과장은 “농가의 가축질병 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전한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해 혜택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소 선정

병영면 동삼인마을·강진읍 송정마을, 25년까지 마을 취약여건 개선

강진군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강진읍 송정마을이 도시형에, 병영면 동삼인마을이 농어촌형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해택에서 소외된 농어촌 및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강진군은 2021년 12월에 공모 신청 하고 올해 1월 전라남도 1차

심사와 2월 국가균형발전 서면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3월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강진읍 송정마을과 병영면 동삼인마을은 좁고 불량한 마을 안길, 노후된 주택과 담장, 방치된 공·폐가 등이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이에 군은 이번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강진읍 송정마을 23억 원, 병영면 동삼인마을에 22억 원을 투입해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 안전가드레일 설치, 슬레

이트 지붕 개량,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범 기획실장은 “기초적인 기반 확충과 주택 정비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한 마을을 발굴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17년 강진읍 남포마을(18억 원), 2019년 군동면 영포마을(21억 원), 2021년 강진읍 장동마을(19억 원), 작천면 내동마을(20억 원)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돼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설명회

장흥군은 ‘2022년 장흥군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 설명회를 열었다. 11일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장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읍면 담당자와 추진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는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공모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공모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 생활수준 향상과 농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추진한다.

다양한 마을 맞춤 사업 진행으로 침체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인구 유입과 유지, 특색 있는 마을 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장흥군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3개소를 대상으로 마을당 사업비 4억원을 지원, 총 사업비 12억원 이내로 2년간 추진된다. 2021년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에 따른 북부권 대상마을 9개소 중 2개소와 남부권 1개소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